

21.07.19(월)~21.07.23(금)

통신/미디어 Analyst 김희재 hoijae.kim@daishin.com

1. 주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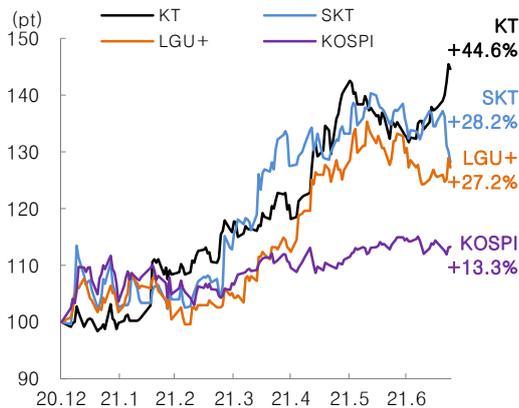
기업	20/12/30	21/07/16	21/07/23	연간 상승	수익률	주간 상승	수익률	21E DPS	배당수익률
SKT (017670)	238,000	322,000	305,000	▲ 67,000	▲ 28.2%	▼ 17,000	▼ 5.3%	10,000	3.3
KT (030200)	24,000	33,050	34,700	▲ 10,700	▲ 44.6%	▲ 1,650	▲ 5.0%	1,700	4.9
LGU+ (032640)	11,750	14,750	14,950	▲ 3,200	▲ 27.2%	▲ 200	▲ 1.4%	500	3.3
KOSPI	2,873.5	3,276.9	3,254.4	▲ 381.0	▲ 13.3%	▼ 22	▼ 0.7%		

주가 Comment

- 주가 코멘트: 다시 KT가 통신업 리드
- 통신업 지수는 주간 -1.9% 하락, KOSPI는 -0.7% 하락. YTD 통신업 지수는 32% 상승, KOSPI는 13% 상승. KT가 2주 연속 상승해서 주중 52주 최고가 및 4년 만에 장중 35천원 회복. SKT는 주간 -5% 하락하고 LGU+가 1% 상승하면서, SKT와 LGU+의 YTD 수익률은 불과 1%p차에 불과
- 3사 모두 1Q에 이어서 2Q에도 두 자릿수 성장 전망. 주가 흐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SKT의 분할이 다가옴에 따라 밸류에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외인 한도 소진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주가에 불리하게 작용. 또한, SKT는 분기배당을 도입했기 때문에, 3Q 배당을 위한 주주확정일 이후 일시적으로 외인의 이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10월말부터 한 달간의 매매거래 정지에 대한 부담, 그리고 분할 재상장 후 SKT 사업회사는 7.2천억원(배당수익 5%)의 배당이 있는 반면, SKT 투자회사는 당분간 배당을 기대하기 어려워서, 배당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들 특히 외국인들이 일시적으로 이탈 후 SKT 사업회사로 재투자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
- KT에 대해서는, 카카오뱅크가 약 19조원에 공모가가 결정됨에 따라 KT가 지분 24%를 보유한 K뱅크의 가치도 본격적으로 KT의 기업가치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단. 카뱅크는 OP 기준 19년 BEP, 20년 1.2천억원 달성 후 21년 19조원 수준으로 공모가 형성. K뱅크는 21년 월 BEP, 22년 연간 BEP, 23년 1천억원 수준 도달 후 IPO 추진 예정. K뱅크의 가치를 카뱅크의 절반만 인정하더라도 KT의 지분가치는 2.2조원, 현시총대비 25%의 업사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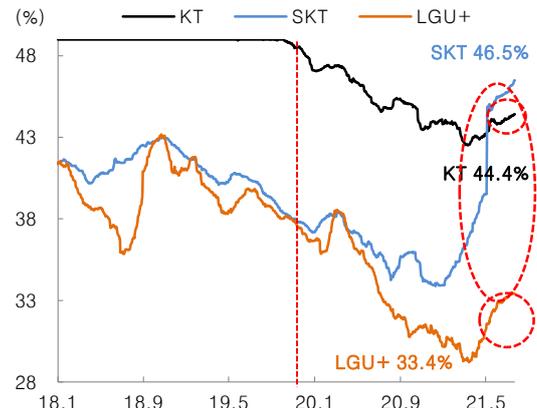
2. 주가 차트

그림 1 21.1월 대비 주가 상승률. 3사 모두 KOSPI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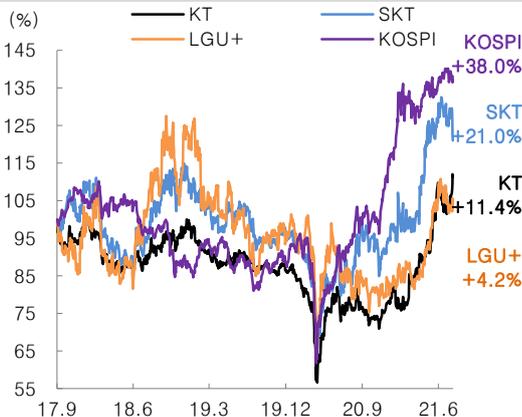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 외인지분율. 실적 개선에 따라 외인 매수도 유입되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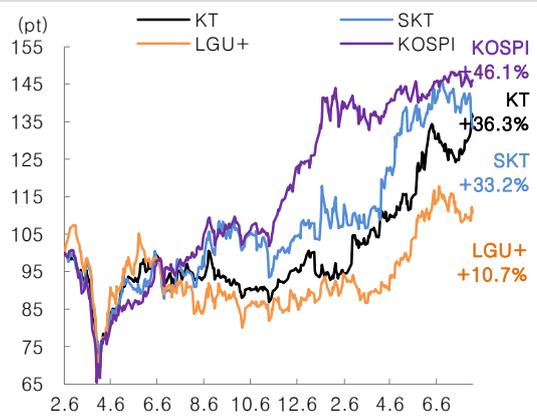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 17.9월 선악할인율 상향 시점 대비 주가 상승률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4 ARPU 턴어라운드(4Q19 실적발표(2/6)) 시점 대비 주가 상승률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3. 주간 코멘트

LGU+ 빅데이터, KT 과징금, KT 커머스		
LGU+_빅데이터 센터	LG유플러스, 빅데이터 센터 구축 국책사업 선정	가업
	1. LGU+가 과기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는 데이터담 구축을 위한 국책사업의 '라이프로그(헬스)' 분야 빅데이터 센터로 선정 2. 시간대별 유통인구, 통화량, IPTV, U+모바일tv 시청이력 등 LGU+가 제공하는 다양한 통신 관련 데이터와 10개 빅데이터 센터에서 축적 중인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연계해 헬스, 통신 데이터를 융합 생산할 계획. 생산된 데이터는 향후 라이프로그 빅데이터 플랫폼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될 예정 3. 한편 정부는 라이프로그를 비롯 금융, 유통, 소비 등 16개 분야에서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각종 데이터를 수집, 분석, 관리할 계획 ■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많은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통신사의 데이터의 가치 부각. 앞으로 통신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데이터를 전송하는 역할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역할로 확대될 것	LGU+ 긍정적
KT 과징금	방통위, KT에 과징금 5억원 부과	가업
	1. 방통위는 KT에 10기가 인터넷 시스템 설정 값 관리 부실로 이용자 이용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3억 800만원을, 속도를 측정하지 않고 개통하거나 속도 미달을 확인했음에도 개통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1억9200만원 등 총 5억원 과징금 부과 2. 또한 SKB, SKT, LGU+에도 10기가 인터넷 개통 때 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속도 미달에도 개통하는 등 이용자 고지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 시정 명령. 위반율은 KT 11.5%, SKB 0.1%, SKT 0.2%, LGU+ 1.1%로 조사 3. 이에 KT는 경쟁사보다 커버리지가 넓고 놓여준 지역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다소 속도가 미달해도 양해를 받고 개통한 사례가 있으며, 현재 양해 절차를 개선해 1차적으로는 서비스 최저 보장 속도 미달 지역에 대해 상품 변경을 권고하고 그럼에도 원할 경우 본인인증을 받고 개통하고 있다고 설명 ■ KT는 국내 1위 인터넷 기업으로서 기술과 시장을 선도해 가는 중, 소비자에 대한 신뢰는 훼손되면 다시 복구 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문제 발생 초기에 빠르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재발 방지책을 강구해야할 것	KT 부정적
KT_맞춤형 커머스	KT멤버십, 맞춤형 커머스 '마들렌' 출시	가업
	1. KT는 멤버십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추천하고 구매까지 할 수 있는, 맞춤형 커머스 '마들렌' 출시 예정 2. KT멤버십 앱이 보유한 이용 데이터와 최근 출시한 '취향을 담다' 서비스를 통해 파악한 취향 데이터를 분석해 고객 수요가 높은 상품을 필요한 시점에 추천. 상품 구매 때 멤버십 포인트를 활용하면 추가 할인 가능 3. KT는 멤버십 빅데이터 기반 고객 맞춤형 혜택과 차별화된 멤버십 이용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 ■ KT는 유무선 통신을 기반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음. 커머스 사업도 그 중 하나. KT가 보유한 고객들의 데이터는 향후 커머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SKT는 자회사 인크로스과 고객 맞춤형 광고를 커머스로 연계하는 T-Deal을 출시하여 높은 호응을 받고 있는 상황. 앞으로 데이터는 다양한 형태로 활용가능한 소중한 자산이 될 것	KT 긍정적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 김희재)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